9. 28 현소강

“적탄에 쓰러져 죽는 나의 죽음까지도 결국은 자연사일 것이다.” 김훈\_칼의노래

이순신의 인간적 면모-인간으로서의 이면과 갈등-에 주목하였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운명 앞에 결연히 나서는 영웅의 모습. 이전에 이순신을 다뤘던 역사물들은 영웅의 탁월함에만 집중했지만, 김훈은 인간 이순신을 그렸다.

-

**2-4. 소설 문학의 융성 (1930년대)**

20년대 후반이 이념의 시대였다면 30년대는 예술의 시대였다. 예술, 개인적 가치를 더 추구했던 시대. 논쟁과 토론 및 비평보다는 창작이 우위를 점했던 시대. 그런 변화가 문학 내부적인 작용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며 외적인 정세변화와 관련이 있다. 식민지시대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문학적 성취가 돋보이며, 문학성이 뛰어나고 근현대 문단을 대표하는 다수의 문인들이 출현한다. 이상 박태원 김유정 이태준 채만식, 정지용 백석 등등… 그러한 성과들의 이면은 씁쓸해서 그 성취를 즐겁게 즐길 수만은 없다.

* 시대가 변했다. 문학 외적인 정세변화와 연동되어서 문학의 변화가 생겼다. 만주사변이 모든 것의 시작, 일제가 마각을 드러낸 시기이자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린 시대
* 만주 사면을 일으킨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한다.

전초기지를 튼튼한 발판으로써 통제하기 위해 신간회와 카프 등 많은 단체들이 사라진다. 20년대의 문화통치가 사라지고 전초기지를 다지기 위한 사상 통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들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검거 선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회인사들이 어려움을 치르고 단체들이 해산됨. 검열을 통한 심한 탄압 - 정간과 폐간, 삭제 등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문학이 개인화되고, 집단과 이념보다는 예술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문학 내적인 정세변화가 아닌 외부적 변화에 의해 30년대의 예술적 경향이 유도되었다.

* 소설은 개인화 내면화의 경향을 띠며 기교를 중시하게 된다.

광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성찰을 하게 된다. 즉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주제를 선명하게 표출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신 기법이 발달하게 된다. 당대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제 대신 기교가 자랐다. 주제 잘못 쓰면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시대였으니까… (당대의 정세와 관련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융성만을 이야기한다면 반쪽을 가리는 것) 🡪 기법에 대한 고민, ‘모더니즘의 시대’

* 모더니즘은 1930년대 문학의 경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어떤 시대의 명칭은 그 때 새롭게 나타난 것들을 가리켜 붙여진다. 두드러진 새로운 경향이 대표성을 인정받아 그 명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모더니즘 문학만 한 것은 아니지만, 당대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은 모더니즘 문학이었다. 시나 소설 다 포함해서. 그 모더니즘의 특성들 – 개인성, 방법적 기교들과 실험들 – 은 그 앞의 이유들과 연관되며 뚜렷하게 확인된다. 주무대는 경성. (일본의 도시개발계획이 겉으로 드러난 시기가 1930년대)

* 모더니즘적 경향의 중심에 <구인회>가 자리한다.

카프가 1934년 이후 정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문단의 중심세력이 공동화된 상태에서 새롭게 부상한 사람들이 정지용 이상 박태원 이태준 등 올스타급들이다. 9인회의 성원은 계속 변하지만 기본멤버는 이상 김기림 박태원 이태준이었다. 주축들을 두고 변동이 일어났던 것.

모더니즘이란 것은 넓은 의미에서 현대주의. 편의상 이름붙인 거라고 봐도 된다. 문학에 대한 이전과 달리 예술적 자각이 선명화되고, 상업적인 이해관계와 묘한 관련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늘 암암리에 비즈니스와 연관되었으며, 창조성 창의성은 비즈니스-예술의 최고 가치가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험의 상업화와 그 폐기 등이 일어났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은 뚜렷한 이념지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국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이었는지 사회에 대한 반항 저항보다는 실험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 (내면 지향, 기교주의)

+ 장편화의 경향 : novel 은 원래 장편화이다. 염상섭의 삼대, 홍명희의 임꺽정. 리얼리즘의 중요한 성과들도 1930년대에 나타난다. 이 리얼리즘들은 1920년대 카프 맹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마음으로 창작에 몰입, 리얼리즘 문학의 뛰어난 성과들이 나타난다. Ex. 이기영 <고향>.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풍수사적으로 그러냈던 김난천의 <대하>, 동반자 작가이긴 하지만 채만식의 작품들.

* 이상, 이태준, 박태원의 소설은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상 – 다양한 실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 사람

사소설/일상 사회를 정교하게 단편으로 형상화한 이태준, 박태원 같은 또다른 경향의 실험자. 박태원은 문체가 독특해서 주목받았다. 이태준은 문체가 간결했는데, 박태원은 독특하게도 장거리문장을 구성했다. <방란장 주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카프 맹원들은 주제나 이념 등에 더 가치를 두었었는데, 그래서 기교부리고 멋내는 당대의 구인회 움직임을 꼴보기 싫어했다. 그 충돌에 앞장섰던 모더니즘 진영의 인물이 박태원이고, 모더니즘의 대표자이자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9명이서 어떻게 중심세력이 되었을까? > 문학의 세력적 판도에서 대결을 벌일 때(부르디외, ‘문학장’) 권력을 쥔 사람들이 9인회였다. 그들이 당대 중요했던 신문들의 학예부장이었거든. 당시에 대표적 문예지의 편집을 맡고 있었고, 문장, 조선, 동아일보 등의 중요 지면의 문화부 쪽 권력을 쥐고 있었다. 신인등단 추천권도 갖고 있었고. 또 그에 답하는 문학적 성과도 냈다.

* 카프 계열과 동반자 작가 들이 거둔 리얼리즘 소설의 성취들이 주목된다.
  + 이기영 「고향」, 김남천 「대하」 등
  + 카프라는 동향이 의미가 있었음을 리얼리즘으로서 보여주었다.
* 장편화 경향이 나타난다.
  + 염상섭 「삼대」, 채만식 「탁류」 「태평천하」, 홍명희 「임꺽정」 등

그 전 시대들은 한 시대를 한 사람과 한 책이 대표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책, 다양한 문예지들이 대표한다.

* 여성 소설가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 강경애, 백신애, 최정희 등 : 성차별이 심했던 시대라 작품을 쓰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정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신의 위치 자각 정도의 매우 초기적 형태의 페미니즘. (최정희) 강경애는 첨예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고, 백신애도 마찬가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1990년대 이후 다시 발굴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통속 소설이 범람한다. : 대중들의 취향에 부흥하고 상업적 성과를 노리는 소설들.

* + 방인근, 김말봉, 박계주 등

**2-5. 일제 말 암흑기와 해방 공간 (1940년대)**

*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문학 창작은 일어로 이루어진다.

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시기. 태평양 전쟁의 시기.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였고, 한국어를 일체 쓸 수가 없었다. 창씨개명, 군국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병참기지화.

*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는 어용 문학론이 전개된다.
* 대부분의 문인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친일 어용 문학의 길에 나선다.

전쟁을 찬양하고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문학들. 근대문학 전반기 사람들은 다 친일이다. 내선일체의 광기,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문학. 활동도 실제로 종군까지 했었고. 이광수가 제일 힘들었다. 이광수 김동인 등 거물들은 총독부가 그냥 놔두지 않았다.

* 해방 공간에서 전개된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 현상은 문학의 장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공산당도 그렇고 임화(카프 2세대의 중심)도 좌익측의 문학단체를 결성하였다. 공식적으로는 해산되었지만 아예 해체되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좌측 인사들. / 신예로 30년대 말에 등단했던 사람들은 구 카프와 대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익 문단을 형성했다. 문단도 이념대립이 심했다. 암흑기에 묻혀 있었던 원고들이 출간되었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황순원의 초기 단편들)

* 일제 말 친일 행각에 대한 반성과 속죄가 진행된다. (시대와 관련된 작품경향)
  + 이광수 「나의 고백」(논리로는 최고 수준), 채만식 「민족의 죄인」(진실성으로는 최고 수준), 김동인 「망국인기」, 이태준 「해방전후」(철원에 숨어 있었다. 눈앞에 그린 듯이 표현함. 사회주의보다는 새로운 조선을 세운다는 대의에 동참한 것. 너무 순진했던 게 아니었을까….) 등
* 해방 후 혼란스런 세태와 귀향의 사연들이 소설화 된다.
  + 세태: 염상섭 ｢두 파산｣ ｢임종｣, 채만식 ｢맹순사｣ ｢논이야기｣ ｢미스터 방｣ 등
  + 귀향: 계용묵 ｢별을 헨다｣ 김동리 ｢혈거부족｣ 허준 ｢잔등｣ 등: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조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